

<2016년 12월 31일 송구영신말씀>

◆ 할렐루야!

1년 동안 시대 말씀을 듣고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자신의 희망의 역사를 이루며
살아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.

- ◆ 이제 2016년 한 해가 다 가고, **‘마지막 날’** 입니다.
한 해 동안 후회 없게 살려고, 열심히 뛰고 달렸습니다.

섭리의 삶은 삶 자체가 **‘후회 없는 삶’** 이라서
섭리사 안에서 사는 자들은 누구든지 **‘승리한 자’** 입니다.

다만 **‘한 섭리열차’** 를 탔어도
<앞칸>에 타서 삼위와 주와 가까이 왔느냐,
<뒤칸>에 타고 왔느냐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.

그러나 모두 **‘섭리 휴거 열차’** 에서 안 내리고 왔으니,
여러분 모두 **‘올해 승리하는 삶’** 을 살았습니다.

- ◆ 교단과 교역자들, 지도자들,
직급이 있으나 없으나 주와 생명을 위해 땀 자들,
환난과 핍박을 이긴 자들, 강사들, 관리자들, 전도자들,
전도하러 다녔으나 결실하지 못한 자들,
자연성전 성지 사역에 힘써 준 자들,
섭리사 성전을 구하기 위해 뛰고 달린 자들,
간힌 선생을 돌아보며 진정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준 자들,
조은 목사, 범석 목사, 섭리인 모두 수고했습니다.

오늘 일일이 다 상을 줄 수 없지만,
앞에 나와서 상을 받으나 안 받으나
시대 주를 따라서 섭리 휴거 열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
모두 ‘승리자’이며 ‘상 받을 자들’입니다.

그동안 상을 줬고,
앞으로도 땅에서 육으로나, 천국 황금성에서 영으로나
가면서 계속 축복해 줄 것입니다.

◆ 2016년 1월 1일 섭리사 전체에 준 꿈 기억나지요?

처음에 <한 괴석>을 보고 갖고 싶었는데
원대로 안 되어 실망하고 나오는 길에
<호랑이 형상석>을 발견하고 얻게 되는 꿈이었습니다.

“처음 것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아라.

두 번째에는 더 좋은 것을 준다. 더 잘되게 해 준다.”

- 하는 뜻의 꿈이었습니다.

개인, 교회, 섭리사, 민족 모두
<열심히 끝까지 행한 자들>에게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.

안 될 것 같았으나 결국 잘됐습니다.

또 <110일 기도 기간> 마지막 날에!

1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.

이로써 ‘더 좋은 것을 얻는 꿈’이 이루어졌습니다!

이것은 1월 주일말씀에 자세히 말씀해 주겠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우리는 <2017년 새로운 역사>를 맞기 전에
9월부터 12월까지 합심으로 기도하면서,
자신과 **섭리사**와 **민족**과 **세계**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.
- ◆ 이 땅에 ‘새로운 때’가 오면,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**불법**과 **불의**를 제거하시며
해마다 ‘**연말 심판**’을 하십니다.
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한 자들에게는 ‘**연말 축복**’을 주십니다.
- ◆ 올해는 앞날을 위해 미리부터 간절히 기도하며 청소했습니다.
깨끗이 청소해야 잔치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.

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자와 함께
<하늘이 정한 앞날의 때>를 맞춰야 하니,
하나님은 ‘보낸 자’를 통해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
미리 행하게 하셨습니다.
- ◆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,
때에 따라 ‘**계획한 일**’을 행하셨습니다.

뉴스나 민족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,
우리는 ‘**하나님의 행하심**’을 알았습니다.
- ◆ 올해 마지막에는 섭리인들이 <110일> 동안 기도했고,
<110일 기도 막바지>에 ‘**뜨거운 성령의 역사**’까지 일어나
전능하신 하나님께서 ‘**축복**’으로 행해 주셨습니다.

◆ 불의를 행한 자들은 모두 드러내어

백성들이 알고 ‘어둠과 불의’가 물러가도록
거리에서 촛불을 켜고 평화의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.

그 무리가 처음에는 5만 명이었다가
점점 더 커져서 200만 명이 넘었고,
TV를 통해 지켜보는 한국의 모든 국민들도
마음의 촛불을 켜고 부정부패, 비리가 없어지기를 바라며
간절히 염원했습니다.

하나님은 그에 따라 공의롭게 행하셨습니다.

◆ 확대해서 1999년에 ‘시대 말세 심판’을 하셨고,
축소해서 연말에 ‘연말 말세 심판’을 하셨습니다.

<말세>는 ‘지구 말세’가 아니라,
‘하나님의 때에 따른 마지막 때’를 말합니다.

◆ 1999년 이때는 새 역사 섭리역사가 무덤 기간에 들어갔던 때입니다.

이때 하나님은 ‘정산할 것’을 정산하시고,
섭리역사와 시대 주가 ‘조건’을 세우게 하셨습니다.

왜요? 무덤 기간 중에 ‘조건’을 세우고,
그로 인해 ‘더 좋은 부활’을 이루어,
다가오는 <휴거 역사>를 맞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.

◆ 그리고 <2012년>에 ‘섭리역사의 부활’을 알리시며,
본격적으로 <휴거의 비밀>을 선포하시며

〈새로운 때, 휴거의 역사〉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.

- ◆ 〈연말〉도 ‘한 해의 말세’ 입니다.

고로 하나님은 〈연말〉에 ‘한 해를 정산’ 하십니다.

〈연말〉에 ‘정산할 것’ 을 정산하시고,

그 후에 〈새로운 때, 새해〉를 맞게 하십니다.

- ◆ 먼저 〈땅에 보낸 자〉가 기도하고 간구하여 풀게 하시고,
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깨끗하게 해 버리십니다.

화목하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분열되어 쪼개지고 갈라졌습니다.

성경 말씀대로

- 그 주권권의 최고 지도자, 곧 〈해〉가 어두워지고
- 그를 증거하는 자 〈달〉이 어두워지고,
- 그를 따르는 〈별들〉이 떨어지는 심판과 징조였습니다.

- ◆ 하나님의 말씀이 섭리사에 선포되면,
하나님은 〈섭리사〉뿐 아니라
〈민족과 세계〉에 다 해당되게 행하십니다.

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, 민족적으로, 세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
- ◆ 〈말세 때〉 해 같은 지도자, 달 같은 증거자,
별 같은 따르는 자들이 떨어지면서 성경이 이루어졌는데
구시대 기성, 미련한 종교인들은
〈하늘의 해, 달, 별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
그때를 ‘말세’ 라고 생각합니다.

그러니 그들을 데리고

<이 시대 하나님의 새 역사의 뜻>을 펼 수 있겠습니까?

- ◆ <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>이 무엇인지,
그 뜻을 알고 따라오는 자들을 데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

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줄 것을 주시며 행하십니다.

올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

<개인들의 것>은 ‘자기’ 만 알고,

<교회의 것>은 ‘교회’ 만 알고,

<섭리사의 것>은 ‘섭리인들’ 만 알고,

섭리사에 있어도 ‘주와 같이 모으고 헤치는 자들’ 만 더 압니다.

- ◆ <하나님이 보낸 자>를 만나서
<하나님의 뜻>을 따라 <휴거>를 이루며 왔으니,
올해는 ‘승리한 해’ 입니다.

시간이 갈수록 <하나님의 뜻인 것>은 온전히 세워지며,

<새 역사>는 찬란하게 커 나갑니다.

다 같이 승리한 역사를 노래할까요?

‘승리했다.’ - 다 같이 불러 보겠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이제 몇 시간 후면 <새해>입니다.

2017년은 ‘실천의 해’ 입니다.

누가 시키지 않아도, 힘들고 어려워도

오직 주를 머리로 삼고 주 안에서 스스로 실천하는
<실천의 해>입니다.

<주 안에서 스스로 실천하며 꿈을 이루는 해>입니다.

- ◆ 또 ‘닭띠의 해’ 입니다. <닭>은 ‘때를 상징’ 합니다.
곧 닭이 울면, ‘새해’ 를 알리게 됩니다.

닭이 울면 ‘새해’ 를 알리듯,
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‘보낸 자’ 를 통해
<이 시대에 실천할 것들>을 알려십니다.

또 성령이 감동과 흥분의 역사를 일으키시며
<2018년 새로운 때>를 맞도록 준비하고 행하게 하십니다.

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,
성령 충만하여 실천하기만 하면 성공합니다!

- ◆ <실천>이 ‘2017년의 꿈’ 을 이룹니다.
<실천>이 ‘주 안에서 바라는 것들’ 을 이루게 해 줍니다.

- ◆ 2017년은 ‘휴거의 삶과 실천’ 을 타고,
<삼위와 주를 맞고 행하는 해>입니다.

모두 <실천>하여 ‘꿈’ 과 ‘바라는 것들’ 을 이루도록,
<휴거의 삶과 실천>을 타고 ‘삼위와 주’ 를 맞고 행하도록,
새해에는 ‘말씀과 성령 충만의 역사’ 를 펴 나갈 것입니다.

- ◆ 모두 ‘꿈’ 을 이루고 ‘바라는 것들’ 을 얻도록,
새해에도 정한 날까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.

기도해야 더욱 ‘진리와 성령 충만의 역사’가 일어나고,
기도해야 더욱 ‘힘과 능력과 지혜’를 받아서
주 안에서 스스로 실천하게 됩니다.

새해까지 ‘기도의 불’이 붙어서
주와 함께 열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!

그래야 전지전능하신 절대신 삼위일체가 행하십니다!

- ◆ <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>을
‘실천해야 될 우리들’입니다.

우리가 안 하면, 몰라서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.

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시는
<사랑의 삶,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서의 절대적인 삶>입니다.

- ◆ 지금껏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했듯이,
<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자들>이 하고,
<그 목적을 위해 택한 자들>이 합니다.

이 시대 많은 생명들이 <하나님의 목적>을 이루도록 예비되었으니,
어서 ‘실천’하여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!

- ◆ <이 시대 하나님의 목적>을 이루고
<삼위의 사랑의 대상>이 되는 ‘섭리사’에
2017년에도 ‘엄청난 기적과 표적’이 일어납니다.

삶 속에서 잊지 말고 ‘희망과 기쁨’으로 기대하면서
삼위와 주를 모시고 사랑하며 ‘충성된 삶’을 살기를,
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